

성공적인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최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술대상과 연령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자연치와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성을 갖추고 있어 '치의학의 신기원'이라고도 불린다.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평소 구강 관리만 제대로 이뤄져도 반영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물론 젊은층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는데, 임플란트는 고액의 치료비용이 드는 만큼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저렴한 치료비용이나 할인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임플란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보상

받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 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계산 하에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술 집도의가 아무리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이라 할지라도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활용을 보편화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환자의 현 상태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환자의 진료동의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는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치료비용이 터무니 없어 저렴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골다공증 치료 중이라면 의사에게 미리 알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며, 노년

층은 노화로 인해 잇몸뼈가 소실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잇몸뼈가 남아 있지 않다면 잇몸뼈이식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치조골이 약한 노년층이나 당뇨환자는 수술 전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치료계획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노벨가이드 임플란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마우스피스 모양에 구멍을 뚫어 인공치아를 심을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유도하는 장치로 기존 임플란트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최첨단장비다. 이 수술 역시 CT와 수술 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수술시간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수술 당일 음식섭취 및 일상생활 복구가 가능하다.

또 환자의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플란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꼼꼼한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 사용을 통해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치과전문사의 믿음신치과 원장

현대차그룹, 인니 피해 지원금 50만 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은 강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에 차량 등을 포함해 총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계열사별 지원 금액은 현대차 20만달러, 기아차 10만달러, 현대건설 10만달러, 현대엔지니어링 10만달러다. 이번 성금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측과 협의해 인도네시아 현지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강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1년 미국 토네이도,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올해 라오스 홍수 등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해에 성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현지 구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양성운 기자 ysw@



대림산업, 협력사와 '동반성장 공정거래 협약식'
대림산업은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오른쪽)가 일우건설산업 이석무 대표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고양 아파트 2곳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대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와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삼송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20년간 무상임대료 대우건설이 시공하며, 고양시가 임대 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이 대략 입주 후 1년여 뒤 개원하는 것에 비해, 이렇게 협약을 맺은 단지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대부분 입주 초기에 개원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시, 충남, 경북 지역 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 체결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협약이다.

윤점식 마케팅실장은 "대우건설은 건



대우건설이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고양시와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삼송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 네 번째부터 코리아인스타 이재학 신약사업본부장, 고양시 노양호 여성가족국장, 대우건설 윤점식 마케팅실장, 중원종합건설 서동환 이사. /대우건설

설사 중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실적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통한 공공보육 증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00-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5층의 16개 동으로 구성

된 169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입주는 2018년 10월 말이다.

주상복합단지인 '삼송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5로 25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38층의 4개 동 아파트 450가구로 구성됐다. 현재 입주 중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경찰관에 감사장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영입점 인근 경찰과 영입점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수형 우리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그룹장(왼쪽 네번째)이 피해예방 유공 경찰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KT&G, 인니 재난 복구에 1억 긴급지원

KT&G가 강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재난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돼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으로, 조기 피해 복구 작업과 주민 생존을 위한 구호물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규모 7.5의 지진과 쓰나미의 여



파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현지 구호 작업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복구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상상펀드'에서 전액 마련됐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정책과장 이원주 △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윤성혁 △ 통상정책총괄과장 강감찬 △ 홍보소통과장 윤선영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도영 △ 운영지원과장 김유진 △ 일자리위원회(파견) 이원두
- ◆소방청 △ 승진 △ 소방청 차장 신열우 △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흥교 △ 소방청 119구조구급과장 김일수 △ 강원도 소방본부장 김중식 △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배덕곤 △ 전보 △ 부산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 소방청 소방정책과장 최병일 △ 중앙소방학교장 이형철 △ 중앙119구조본부장 김홍필 △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윤순중 △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변수남 △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이창섭 △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김성곤 △ 소방청 대변인 조선호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음

- ▲ 조순례씨 별세, 한성권(JW홀딩스 대표이사 사

美 클리오 광고제

제일기획 '8개 본상'

제일기획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8 클리오 광고제' 시상식에서 국내 광고회사 중 가장 많은 8개의 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59회째를 맞은 클리오 광고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고 시상식 중 하나다. 전 세계에서 출품된 우수 캠페인들의 창의성을 평가해 상위 5% 이내에 드는 작품들에 상을 수여한다.

제일기획은 국내에서 진행한 2건의 공익 캠페인으로 동상 2개를 받았으며, 네덜란드·스페인·홍콩·인도 등 해외 캠페인의 동상 6개를 더해 총 8개의 동상을 수상했다. 동상을 받은 한국 공익 캠페인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더스트씨(DUSTSEE)'와 불법 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제작한 '스톱 다운로드킵'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GS리테일 '상호존중' 캠페인 진행
GS리테일이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상호존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GS리테일이 실시하는 '상호존중 캠페인'은 GS25, GS수퍼마켓, 말라블라 매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매장 곳곳에 비치하는 것으로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홍보물은 전국의 GS25와 GS수퍼마켓, 말라블라 매장의 계산대 앞면에 부착되며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님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GS리테일